기업간 기술 공유…광주 4차 산업혁명 뜬다

헬스케어·AI 낙상방지 솔루션 상의, 기업융합 제품 지원 첫 성과 공기질 지도·철강 물류 자동화도

28일 광주상의에서 헬스케어 기업인 토마토헬스케어와 AI 기업인 요타코퍼레이션이 합작해 개발한 'AI 기반 낙상방지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헬스케어 기업과 AI(인공지능) 기업이 만나 신기술 AI 기반 헬스케어 제품이 탄생했다. 지난 2년 간 광주상공회의소가 추진한 '4차 산업혁명 지원사업'의 첫 성과다. 앞으로 도시 공기질 맵핑화 기술,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개발, 모델하우스 온라인 VR(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등 기술융합 제품들이 성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8일 브리핑룸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어 헬스케어 전문업체 ㈜토마토헬스케어가 개발한 솔루션을 공개했다.

토마토헬스케어는 최근 광주상의가 지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컨설팅을 통해 충남 천안에 소재한 남서울대학교 산업보안학과와 빅데이터·인공지능(AI)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 요타코퍼레이션㈜와 상호협업을 통해 '낙상방지 솔루션'을 개발·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얼굴과 관절상태를 확인해 환자가 침대에서 오르내리려 할 때 또는 취침시 침대 팔걸이 상태 등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판단해 위험이 감지되면 요양보호사와 가족에게 호출 신호와 영상자료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환자의 행동패턴을 24시간 365일 관찰·분석함으로써 환자 특성에 맞는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성능을 인정받아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요양시설과 신설 공립치매전문 요양병원에 도입이 확정됐으며, 일본 진출도 진행 중이다. 고령사회에 요양병원 등에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토헬스케어는 이번 솔루션 개발로 내년 매출은 3배 이상, 신규 고용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역 산업계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상의가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광주상의는 올해 자동차부품 제조·물류업, 사출금형, 1차 금속, 미세먼지 샘플러, 건설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6개사를 지원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광주상의는 앞으로 기술이 필요한 기업과 기술을 가진 기업을 연결, 신제품 출시에 속도감을 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 철강제조업체 ㈜범우는 RFID 기반 철강 자동화 물류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있고, 공기질 측정 원천기술을 보유한 ㈜랩웍스는 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공기질 맵핑화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광주 신산업인 공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의 아이디어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빠른시일 내 기술융합 신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를 시작으로 신기술 융합을 통한 제품 고도화, 생산공정 고도화, 애로기술 해소 등 우수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3.60 (+5.71)	↑ 금리(국고채 3년)	1.52 (+0.09)
↑ 코스닥	652.42 (+0.05)	↓ 환율(USD)	1170.70 (-2.30)

광주 광산업 인도네시아와 합작법인 설립

수출상담회서 64만달러 계약 광융합 헬스케어 인기 증명

광주 첨단산단에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광융합 헬스케어 한국-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유통 회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광융합 수출 상담회'에서 인도네시아 뷰티 유통회사인 '보르스야 찝다 코뮤니카'사가 광주 광융합업체인 '㈜명신에이텍'에게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광융합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및 뷰티 제품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광산업진흥회는 다음달 27~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 광융합 산업로드쇼'에 인도네시아 회사 관계자들을 초청,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2~23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수출상담회는 ㈜명신에이텍, ㈜지오씨 등 광주 광융합기업 등 11개 기업이 참가해 64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지오씨(대표 박인철)는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현지 공기업 'WIKA'(위카)로부터 추후 행정수도 이전 개발 합작 프로젝트(스마트 시티 조성 프로젝트) 진행에 협조 요청을 받았다.

또 지난해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인 수까부미시에 LED가로등 50대를 시범설치한 한 LED 조명기업은 이달 말 또 다른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에 가로등 40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시범설치 LED조명등은 현지 마케팅 효과도 톡톡히 거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성과에는 광산업진흥회의 해외 현지 바이어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광산업진흥회는 그동안 동남아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과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120명의 바이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조용진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진흥회가 지원하는 시범설치 사업이 광융합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동남아는 물론 유럽, 미주, 러시아, CIS 등 국가로 대폭 확대하고 인증 지원까지 추진해 광융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 냉장고·세탁기 등 美 3분기 점유율 1위

광주에서 만드는 삼성전자 냉장고·세탁기 등이 올 2분기 미국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8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삼성 냉장고는 3분기 21.7%(금액기준)의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켰다. 14분기 연속 선두다.

특히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점유율이 28.9%에 달하면서 10년 넘게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세탁기 시장에서도 3분기 점유율 19.3%로 1위를 차지했다. 또 건조기는 20.2%의 점유율로, 선두 자리를 지켰다. 지난 2017년부터 연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매 분기 1위를 이어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서구 1금고 재유치…금고 경쟁 잇단 승전보

송종욱 행장 금고 선정 총력 동구·북구 '수성' 전망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지자체 금고 선정 작업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울리며 향토은행의 주가를 높이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자체 금고는 지방은행이 맡아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에 힘입어 목포시 1금고와 광산구 1금고 운영을 맡은데 이어 광주시 서구 1·2금고 재유치에 성공해 나머지 동구와 북구까지 싹쓸이 '수성' 전망도 점쳐지고 있다.

28일 광주은행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을 담당하는 제1금고에 광주은행이 선정됐다. 서구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서구 제1금와 2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광주은행을 낙점했다. 서구는 올해까지 단일금고로 운영했으나 운영 예산이 증가해 처음으로 1·2금고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

서구청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 금융기관은 약 4482억원을 2020년부터 3년간 운영하게 된다. 광주은행은 지난 1986년부터 33년간 광주 서구 금고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동구의 차기 금고 운영기관 모집에 광주은행 한 곳만 참여해 재공고에 들어가는 등 동구와 북구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광주은행의 수성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은행의 이 같은 선전은 최근 정부의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지방은행의 설립 목적인 '지역밀착경영'과 '지역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자체 금고 운영에 거액의 출연금을 지출하면서 과열경쟁에 대한 경고음을 울려왔다. 이러한 분위기에 각 지자체들이 출연금에 비중을 두지 않고 바뀐 배점에 따른 공익적 측면과 지역의 사회공헌 등 공정 평가를 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광주은행은 송종욱 행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지자체 금고 탈환과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며 향토은행의 위상제고와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광주은행은 서구 지역에 총 1조8889억원, 중소기업에 1조263억원을 지원하는 등 시중은행과는 결이 다른 지원을 해왔다.

송 행장은 "광주은행을 믿고 지난 33년간 금고를 맡겨주신 서구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재유치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와 지역밀착경영에 힘써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

10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상승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달 '100선'을 회복한 뒤 나아지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10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6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광주·전남지역 지수는 지난 7~8월 100을 밑돌다가 지난 달 102.1로 반등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8년)보다 비관적임을 뜻한다.

전국 지수는 전달보다 1.7포인트 상승한 98.6을 나타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가계부채CSI(소비자동향지수)는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오르고 가계부채전망CSI도 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금리수준전망CSI는 87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하며 6개월 뒤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현재가계저축 소비자동향지수는 지난 달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4~21일 지역 도시가구 중 6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동향조사를 진행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